원희룡 장관, "안전한 조종 여건 마련과 작업효율 향상, 두 마리 토끼 잡는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만들 것"

- 20일 오후,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현장 방문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**6월 20일(화)** 오후 1시 30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**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현장**을 방문하여 작업기록장치 시연을 직접 보고, **시범사업 추진현황**을 **점검**하였다.

○ 작업기록장치는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과부하방지장치와 풍속계 등을 통하여 **조종정보**와 **환경정보**를 수집·기록하여, **안전사고 예방**과 **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**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며,

○ **한국토지주택공사**(사장 이한준) **시범사업**으로 **5개 현장**의 타워크레인에 설치하여 **실효성**과 **개선 필요사항** 등을 **검토**할 계획이다.

□ 원 장관은 "타워크레인 **작업기록장치**는 작업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**사고 예방**이 가능하고,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**원인 분석**을 통해 **유사사고 재발**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"이라며,

○ "향후 **시범사업 결과**를 토대로 실효성 검증 등 **철저한 성과분석**을 거쳐 작업기록장치 **의무화**를 **검토**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□ 또한, "시범사업 기간 동안 **작업효율 향상** 등 **추가 활용방안**도 **적극적으로 발굴**하여 '**안전과 효율**' **두 마리 토끼**를 **동시**에 잡을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□ 한편, 원 장관은 "앞으로 **건설 현장**에 **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**와 **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체계**와 같은 **다양한 창의적인 기술**을 검토·추진하여, **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생태계**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"이라 밝혔다.

2023. 6. 20.

국토교통부 대변인